

# 서양인 선호하는 수행법 '무엇'

### 출가·열반절기념 트리싸이클지 '천년왕국...' 기획 소개

출가·열반절을 맞아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잡지 트리싸이클을 최근호에 실린 '천년왕국의 수행'을 받게, 서양인의 수행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글에서 서방불교 종단(FWBO, Friend Western Buddhist Order) 의장 상가라시타(영국)와 캄포(Gampo) 수도원장 앤 케마 초드룬(캐나다)이 '자유로운 수행'과 '형식화된 수행'을 각각 권유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수행'의 기획자인 스테판 백셀러는 '서양의 수행관은 '깨달음'이 아니라 '자아의 진리를 추구했던 아시아의 전통에서 벗어나 19세기 제국주의의 시대적 사유(惠惟)를 배경으로 수행을 한정짓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서양의 변화된 수행관을 지적했다. **[편집자 주]**

### 加 캄포수도원 초드룬 원장

수도원이란 수행자를 위한 열린 공간이다. 수도원을 통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자연스럽게 동료간의 '유대'와 스승들의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수행을 영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갖는 '인간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행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료'와 '스승'과 같은 인간 관계란 독소(毒素)적인 요소



Chodron Rinpoche

### 수도원 수행

### 절제로 인연고리 끊는 공부

속시키는 원동력, 즉 '유대'와 '가르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수행자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동료'와 '스승'이란 친분 관계가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를 가지고 있는 수도원 수행을 권유하는데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수행자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라면 분명히 자신이 거머쥔 인연의 고리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원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완성한 깨달음은 열린 마음을 통해 불완전한 사부대중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고 구성원 상호간에 진정한 교동이 이뤄지는 사회, 율고 그룹의 구분이 필요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 FWBO 상가라시타 의장

오래도록 경전을 읽고 부처님 시대의 기록을 보았지만 수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처가 있었다는 기록은 보질 못했다. 특히 부처님은 동시대의 사

스러운 목적을 위해 새롭게 만든 특별한 사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사회구조란 본래부터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항상 품고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Sangharajita

### 자유수행

### 제도벗어나 영감·지혜 얻어

회적 규범에 대해 몹시 회의적인 태도를 지녔다. 그리고 부처님은 율장한 수리를 자랑하는 대자연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수행하고 살았다. 나는 이것을 비형식적인 수행이라고 일컫는다. 현대에는 수도원과 같이 성

수행처에서는 수행자에게 항상 특별한 규제를 강요하게 되고,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열정'과 '영감'을 억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티베트에서 두드름 린포체가 94년도에 영국을 방문해 열었던 집회를 잊을 수 없다.

린포체가 살피는 동안 집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각각의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로서 교감이 가능했다. 이처럼 스스로 평등해진 영혼이 서로 상호작용해 정신적인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 “兩岸평화 불자관심 촉구”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세계 불교도들에게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호소문이 인터넷에 등장했다. (http://www.infinet.com:80/~rinpoche)

美 불교도우회 대만사태 사이트 인터넷에 호소장하라(Keep Taiwan Free)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그것. 불교도우회의 호소문에는 "대만의 평화가 유지되며 중국이 모든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중국은 대만의 문화와 종교적 자유를 말살하려는 군사적 행동

을 즉각 중지하라"며 "불교도들이 지혜와 자비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불교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불교도우회 사이트에서는 또 미국 백악관과 중국 정부에 전지우편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정부에 반대하는 해외 다른 사이트들과 연계되어



태고종 제17대 최혜초 총무원장 취임식이 지난 20일 불영사 심천문전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종단면모 일신 사회사업 역점”

####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20일 취임식서 밝혀

태고종이 종단발전기금 1백억원을 마련하고 대사회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태고종 제17대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지난 20일 심천 불영사 심천문전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 대독을 통해 종정 보성스님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진실로 청정한 면목을 회복하여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말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율주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이강문 문체부차관, 서든각 진흥원이사장, 국회장학회 권익현회장, 이재석 종교협의회회장, 흥운식당주주 대문회예총회장, 이경규 서대문구청장 등 각계인사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종회회장 금담스님

의 대독을 통해 종정 보성스님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진실로 청정한 면목을 회복하여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말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율주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이강문 문체부차관, 서든각 진흥원이사장, 국회장학회 권익현회장, 이재석 종교협의회회장, 흥운식당주주 대문회예총회장, 이경규 서대문구청장 등 각계인사 2천여명이 참석했다.

### BBS 볼프로 개편 포교물 대폭 강화

#### 신행·가요·스포츠등 기획 다양

BBS가 봄을 맞아 4월1일부터 포교방송의 기치를 내세운 다양한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봄개편에는 불자들의 숨은 신행과 인연이야기를 따뜻한 터치로 엮어나갈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불교 관련음악을 현장 답사, 채집을 통해 직접 제작한 기획프로그램 '불교음악 순례', 원로스님들의 삶을 직접 들어보는 심야토크쇼 'BBS초대석' 등 포교프로그램이 대폭강화

된다. 이와 더불어 교양오락부분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장했다. 오후시간의 나른함을

신나는 트롯트 음악으로 해소시킬 '오후의 가요산책'과 불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까지 충족시켜줄 'BBS스포츠' 등이 마련돼 봄을 맞아 활기넘치는 불교방송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다. 신선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기획 맑고향기롭게** (일요일 오전 7시10분) **가림을 찾아서**(월~토요일 오전 8시30분) **BBS스포츠**(월~토요일 오전 8시40분)=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을 맞아 프로야구, 월드컵축구, 애플볼타, 올림픽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김길원감사의 재선임과 12명의 새이사 선임이 결정됐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혜초(태고종 총무원장), 탁해(진각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중앙총회회장), 광우(전국비구니회회장), 목산(통도사 주지), 성오(법어사 주지), 도영(금산사 주지), 현오(법연사 회주), 동광(도선사 주지), 지홍(낙산사 주지), 종영(화엄사 주지), 법동(직지사 기획실장) 등 12명이다.

민족분단의 현과 통일 의원을 불교적 시각으로 승화시킨 영화 '카루나'가 지난 16일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서 일제히 개봉됐다. 카루나에는 불자와 스님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스킵리극장=고영배 기자)

조계종 불교자주화 개혁의 시발점인 3·29법안 2주년을 앞두고 개혁불사를 주도했던 재가단체들이 고인에 빠져있다.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개혁불사 계승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으나 금년에는 구종법회를 계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

년이 멀어지고 하기에 어느 단지 모르게 개운치가 않다. 94년, 당시 개혁불사는 사부대중이 온몸을 던져 이룩한 귀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스님은 물론 재가불자들이 분명히 일

려정비, 종권보완, 공개운영 등 획기적으로 종단을 개선해 왔다. 특히 개혁전만 해도 20여억원에 불과했던 종단예산이 금년에 1백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러한 개혁불사의 성과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단 집행부의 개혁의지에도 불구

다. 이러한 불만은 재가자의 경우 더욱 심하다. 재가자의 위상이나 종단참여가 개혁전보다도 오히려 뒤쳐졌다는 것이다. 개혁불사가 사부대중이 아닌 비구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주고고 있는 것이다.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년전에 불이 붙은 개혁불사는 사부대중의 혼연일체로 이루어졌다. 대중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도 소외된다면 개혁불사는 계승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즈음 개혁불사를 선도했던 재가단체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 이준엽

(취재1부 차장대우)

### 조계종 개혁불사 2년

하고 불자들의 개혁불사 체험지수는 형편없다. 대표적인 부분이 비구니와 재가불자의 개혁동참 여부. 비구니스님들은 아직도 종단운영에 소외당하고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神秘的 佛塔다라니”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기가 발생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운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물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이 방법은.....

-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운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 ② 영기의 병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기의 병의 및 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바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 ④ 산소에 말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게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 ⑤ 집다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번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물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무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열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과 함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 **보문포교원** (원장 각장)  
부설 : 불교바라민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해명서

현대불교신문 3월20일자(제70호) 2면 하단에 게재된 [한국불교교화원 성명서]에서 3명 대표자 이름중 “감사 이 정명”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정명과는 무관함을 해명합니다.

불기 2540년 3월 19일  
이 정 명 합장

## 근대승생활불교강좌권 제3기 개강 4월15일

1. 예불의식, 제불공 49제 구병시식등
2. 氣운동 심신수련 (월~금 오전 6:30~7:40)
3. 풍수지리, 주택건물감정, 묘지쓰는법
4. 5운6기 사주학, 평생궁합운세, 길흉법

◇강좌기간 : 각반 3개월 선착순 30명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분  
강좌시간 : 월,수요일 (4시반, 7시반~9시)

◇위 치 : 서초3동 1552-10 서초역에서 2분 (변호사회관~홍부네슈퍼·정우이발관 뒤)

※신행상담및 화끈한 운세검정※

대한 불교 **대승종 총무원 포교회관** 內  
접수문의 : 02) 523-0241, 0243